고성 옥천사 청소년 명상캠프 진행

'2023년 새해맞이 청소년 명상캠프' 초~대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 참가 체험형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과 독수리 먹이주기 템플스테이 진행 학교 밖 아이 위한 대안학교 준비

성낙두 경남지사장



옥천사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옥천사와 고성읍 독수리 식당에서 템플스테이 '2023년 새해맞이 청소년 명상캠프'를 진행했다.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가 지역의 문화 · 생태와 연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옥천사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옥천사와 고성읍 독수리 식당에서 템플스테이 '2023년 새해맞이 청소년 명상캠프'를 진행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마가 스님을 비롯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과 포교사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명상 예불, 타종체험, '천상천하유아독존' 등의 불교의식 체험을 비롯해 해탈명상, 소리명상, 숲속명상, 차 명상, 걷기 명상 등 마가 스님이 진행하는 명상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 · 예술 · 생태 활동가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 2월 10일에 열린 '해탈명상'에 참가한 대중은 자신이 직접 그린 종이탈을 쓰고 5분 동안 각자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어렵게 털어놓은 학생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경은 학생(삼현여고 1)은 "탈을 쓰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편했다"며 "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오면 그땐 내 이야기를 확실하게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대방에게 절을 하는 천상천하유아독존 프로그램도 청소년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송재원 학생(건국대)은 "지금까지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주인공으로 절까지 받고 보니 부끄러웠다"며 "좀 더 주인공답게 살려고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자기 자신의 장점을 발견해 나아가는 긍정명상 '에고 깨트리기'를 체험한 권자연 학생(가천대)은 '나는 무엇인가. 나에 대한 성찰'이라는 제목의 후기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성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나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주체적인 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마가 스님은 "불완전한 아이가 혼자가 아닌 여러 명과 함께하면 사찰에 와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교가 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되어 이번 템플스테이를 시작했다"며 "지금까지는 불교 외적인 공부를 해 왔다면 이제는 내면으로 채화시키는 명상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마음과 미래불교를 위한 청소년 명상을 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청소년들이 자기를 보지 못하고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다니다가 뒤처지고 포기하게 될 때, 스스로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찾게 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둘째 날인 2월 11일에는 고성 독수리 생태관에서 독수리 먹이주기 체험을 진행했다. 체험 지도를 맡은 김덕성 독수리생태관 대표로부터 독수리의 생태와 환경보존의 중요성, 생명존중사상에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다. 멸종위기종인 독수리는 몽골에서 고성까지 3000km~4000km를 날아 우리나라 고성까지 와서 겨우살이 후 다시 몽골로 돌아간다.

한편, 옥천사는 미래의 주역이 될 인재불사의 일환으로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또 3월부터 상실감을 치유하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선운사 20대 주지 후보에 경우 스님

문화도량 선운사 등 비전 제시



조계종 24교구 선운사 20대 주지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경우 스님이 선출됐다.

선운사는 2월 13일 성보박물관에서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현 주지 경우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경우 스님은 중앙선거관리원회 진산스님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경우 스님은 3연임을 하게 됐다. 3번째 임기의 시작은 4월 4일부터이며, 4월 8일에는 주지 임기의 시작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경우 스님은 당선 인사를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최선을 다해 살고자 했으나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선운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요즘 신도와 출가자 수가 줄어들면서 절 집안의 위기라고 본다" 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님들이 초심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경우 스님은 향후 선운사의 새로운 비전과 도전과제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 확대 및 전통사찰 개 · 보수 등 말사 지원 정책 확대로 함께 성장하는 본 · 말사 실현 △본 · 말사 ·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구발전위원회 구성으로 교구발전방안 모색 △세계적인 명상체험관 조성과 각종 문화축제 및 복지 활동으로 '최고의 문화도량 선운사'와 '문화도시 고창'을 제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반야정사, 나무방생법회 봉행

에메랄드그린 1200 그루 방생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특별한 방생법회가 열렸다. 서울 반야정사(주지 효진)는 2월 10일 장수 성관사(주지 화진)에서 부처님의 생명에 대한 가르침과 탄소제로를 실천하고 지구를 살리는 나무방생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대중은 무설전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환경과 지구 생태계의 복원을 염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무설전에서 법회를 마친 불자들은 나무방생 수종인 에메랄드 그린묘목을 안고 관음정근을 하며 탑돌이를 하고 겨울을 지낼 비닐하우스로 향했다. 이날 반야정사에서 방생한 나무는 에메랄드 그린 약 1200여 그루다. 겨울 동안은 비닐하우스에서 보관하다 봄이 되면 성관사에 조성된 나무방생부지에 심어질 예정이다.

반야정사도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나무방생 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생명평화포럼 1차 준비모임 개최

도법 스님 등 각계 인사 참석해 기후 등 위기 '생명평화'로 풀어



'전북생명평화포럼'이 2월 10일 전주시 파레스토랑에서 '또 다른 전라북도를 상상하라!'라는 주제로 1차 준비모임(대표 도법, 김택천, 박맹수)을 개최했다. '전북생명평화포럼'은 지난 2월 6일 전라북도의 가치를 생명평화와 생태문명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 출범했으며, 전북지역의 종교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 및 정관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은 인사말에서 "늘 삶이 인간다운가? 묻고, 출가 수행자다운 괜찮은 삶인가? 물으며 살고 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기도 하다가 찾은 개념이 생명평화이다"며 "요즘 사회적 관심사가 된 기후위기, 코로나19, 양극화, 지역소멸 등은 우리의 삶과 철학과 세계관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의 포럼은 이런 문제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라고 본다"고 성찰과 기대를 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조정현 전주YMCA 사무총장의 사회로, 주요섭 (사)밝은마을_생명사상연구소 대표의 '또 다른 전북은 어떻게 태동하는가?', 정웅기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운영위원장의 '생명평화 전라북도를 상상한다'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이재원(사단법인 이음 대표), 엄성복(전북완주 고산면 지역활동가)가 토론자로 나섰다.

'전북생명평화포럼 준비모임'은 기후위기, 지역소멸, 청년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전라북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전라북도의 위기를 생명평화의 문제의식으로 풀어보기 위해 노력하고 정책 대안까지 이어져 전북생명평화특별자치도로 꽃피기를 기원하며 전북생명평화포럼 예비포럼의 형식을 통해 대중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생명평화포럼 준비모임'은 지난해 수현사에서 진행된 전북사부대중원탁회의에서 전북생명평화포럼을 제안한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과 오랫동안 전북지역 환경운동가로 활동한 '전북생명의 숲' 김택천 대표, 前 원광대 총장 박맹수 교무를 주축으로 지역시민사회 활동가들로 구성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신년하례식 · 현판식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회장 월인, 대한불교승가종 종정)가 2월 15일 양산 불광사에서 계묘년 시무식을 겸한 신년하례식 및 현판식을 봉행했다.

이날 신년하례식에는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양산불광사 청봉스님,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혜승 스님, 대한불교수미산문 조동정 종정 정림 스님, 한국불교근본해동종 종정 정일 스님, 대한반야불교조계종 종정 도우 스님, 세계불교육조계종 종정 동봉스님, 국제불교금륜종 종정 지환 스님, 대한불교성덕종 종정 세진 스님, 대한불교법황종 종정 혜능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종정스님들과 일붕신문 서병열 회장, 배영희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종정협의회 회장 월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광사까지 먼 걸음하신 종정스님들과 오늘의 법석을 준비해주신 불광사 청봉 종정스님께 감사드린다"며 "계묘년에는 오늘과 같이 분발하시고 모두가 복된 나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는 2023년 주요사업에 대한 토의에서 오는 4월~6월경 종정협의회 창립 28주년 기념 대법회 및 제14대 회장 이취임식을 논산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개최하고 장병들을 위문하고 수계법회를 봉행할 것을 결의했다. 또 4월 15일에는 종정협의회와 대한불교성덕종 주관으로 망향의 동산 위령대재를 봉행할 것을 결의했다.

종정협의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봉행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2179위의 추모제를 봉행할 것을 결의했다. 대종사와 종사, 대덕스님들에 대한 품서의 건은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법회 후에는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현판 개막식도 진행됐다.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혜승 스님은 "계묘년 새해 코로나로부터 조금은 생활이 활발해지니 올 한 해 협의회 중심으로 각자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보은사 월호 스님 초청 백고좌법회



광주 보은사(주지 도제)는 지난 2월 12일 대웅전에서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한 백고좌법회를 봉행했다.

행불선원 월호 스님을 초청해 진행한 제2회 보은사 고월 백고좌 법회에는 신도 200여 명이 동참했다.

보은사 고월 백고좌법회는 지난 1월 8일 마가 스님 초청법회를 시작으로, 3월 혜총 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4월 월암 스님(한산사 용성선원장), 5월 정목 스님(BTN-나무그늘 아래서), 6월 11일 현고 스님(보은사 42주년 기념법회), 7월 광우 스님(BTN-소나무), 8월 대경 스님(송광사율원장), 9월 일수 스님(백양사선원장) 등을 초청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운사, 각성 스님 대승기신론 특강



고운사(주지 등운)는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화엄템플관에서 경전연수교육의 일환으로 각성 스님의 〈대승기신론〉 특강을 진행했다.

고운사가 2009년부터 진행해온 경전연수교육은 '승려연수 교육에 관한 령'에 의거 조계종교육원으로부터 승려연교육과정으로 인정받아 수료하며 30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입재식에는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총무국장 도륜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주지 등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각성 큰스님의 열정에 감사하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특강에 참석해 주신 스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울산불교신도회 27대 이영수회장 취임

2월 10일 이 · 취임식 위상 강화 · 유산발굴 홍보 진력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 26대 이병호 회장과 27대 이영수 회장의 이 · 취임식이 2월 10일 울산 문수컨벤션 다이아몬드 홀에서 열렸다.

이날 이 · 취임식은 개회, 삼귀의례, 우리말 반야심경 봉독, 내빈소개, 감사패전달, 재직기념패전달, 이임사, 추대패 및 회기전달, 취임사, 축사, 격려사, 축가, 축하 케이크 커팅, 사홍서원, 폐회, 단체기념촬영, 저녁만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병호 26대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지만 임기 중 닥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내외 경제가 매우 어려운 과정 속에 사회적 문화적으로나 모든 관습과 신앙생활이 혼돈의 시간이었다"고 회상하고 "그동안 울산 불교 발전을 위하여 아끼고 사랑해주신 많은 스님과 신도 및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영수 27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신도회장으로 소임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사부대중과 소통하고 화합을 도모하며, 혁신으로 울산광역시불교신도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울산지역 내 불교문화 유산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는 불교신도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태고종 전북종무원 · 탑사, 수계법회 봉행

육군 35사단 호국 충경사서 수계법회 및 위문공연 개최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종교 활동이 중지됐던 군법당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과 마이산 탑사, 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 진안군 자원봉사센터9센터장 최주연)은 2월 12일 육군 35사단 호국 충경사를 방문해 수계법회 및 위문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진성 스님, 천지사 주지 현진 스님, 호국 충경사 각담 스님, 이재현 마이산 탑사 붓다봉사단장, 최주연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장, 오혁재 35사단장, 35사단 장병과 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봉행된 이날 수계법회에서 진성 스님은 장병들에게 삼귀의계와 오계를 설하고 수계제자를 대표한 정준식, 권용삼, 고혁서 병사와 김태우, 이재건, 신유준, 홍성혁 훈련병에게 수계첩을 전달했다.

이어 특설무대에서는 장병들을 위한 위문공연이 펼쳐졌다. (사)전북문화관광연구소 남상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위문공연에서는 신세대 트로트 가수 해수, 밸리댄스 팀 '나니아', 댄스동아리 팀 '러쉬', '나인틴'이 출연해 장병들과 흥겨운 시간을 즐겼다.

또 다양한 장기를 가진 장병들이 무대에 올라 저마다의 장기를 자랑했다. 이날 마이산탑사 붓다 봉사단과 진안군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은 법회에 참석한 장병들을 위해 흥삼찐빵, 피자, 그림커피, 떡볶이, 어묵, 음료수를 제공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구 보현사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

2022년 12월 자산 800억 달성



대구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원각)은 2월 11일 오전 11시 대구 향교 대강당에서 조합원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022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2년도 잉여금처분(안) 승인의 건, △상임이사장 보수 결정의 건, △202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등 5개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원의 성원과 임직원의 노력으로 2022년도 자산 800억 원을 달성했으며, 배당률 3.1%를 기록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